

## 지 자체 소식

### ■ 경기도,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적극 나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13일 도청광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2개종과 전기이륜차 5개종을 전시하고 직접 탑승하여 운행해 볼 수 있도록 시연회를 실시하여 저공해 차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사를 가졌다. 도는 올해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98대와 전기이륜차 1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작년 국내에서 개발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클릭(현대)에 이어 2005년식 베르나(현대)와 프라이드(기아)가 지난 10월 초 출시됨과 동시에 국내 최초로 전기 이륜차가 개발되어 경기도가 차량 보급을 적극 지원, 우리가 만든 저공해 자동차의 판로를 마련해주고 홍보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연료소모가 많은 시동 및 가속 주행시에는 전기 모터 중심으로 달리고 연료소모가 적은 정속 주행시에는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차량이다. 또한 연비가 약 18Km/l로 기존 차량에 비해 40~50% 개선되었으며, 기존 휘발유 차량보다 배출가스도 30% 이상 감소 효과가 있는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이끌 대표적인 차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50cc미만 이륜차(일명 스쿠터)는 자동차보다 CO(일산화탄소)는 10배, HC(탄화수소)는 30배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배출가스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개발된 배출가스와 소음이 전혀 없는 전기 이륜차 보급이 중요한 실정이다.

도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대당 3,800만원, 전기 이륜차는 대당 200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저공해 차량을 우선 수도권내 지방행정기관 및 관할 공공기관, 지

방공사·공단, 출자법인·출연법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국비로 기존 일반 휘발유 차량가격의 차액인 2,80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한다.

### ■ 경북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대폭 확대투자

경상북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 홍수피해가 반복, 증가됨에 따라 상습적인 수해위험지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도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41억원이 증액된 561억원을 증양으로부터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경북도의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계속사업 지구인 예천군 용궁면 지방2급 하천 복계천 가야지구 및 군위군 신안천 청로지구 등 20지구에 393억원, 수해위험이 우려되는 영주시 안정면 지방2급하천 홍교천 오계지구 및 의성군 비산천 미천지구 등 15개 지구에 168억원을 신규지구로 선정 집중투자 할 계획이며 2006년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 이전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건설교통부의 제3단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99년부터 계속하여 156지구 533Km에 5,4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가 4,253호 및 농토 8,318ha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4단계계획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147지구 714Km 7,764억원을 건의하였다.

### ■ 대전시, 「IT전용벤처타운」 건립 국비 확보

대전광역시시는 지난 11일 올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사업 종료로 어려움이 예상되던 'IT전용 벤처타운 건립' 예산중 국비(중소기업청) 24억원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확보, IT산업육성에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IT전용 벤처타운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현물출자 부지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105억원, 부지2,848평에 건축연면적 2,858평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IT전용 벤처타운에는 교육·홍보실과 40여개의 기업 성장 지원실, 해외 협력지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시공업체선정을 거쳐 내년 1월 착공, 2007년 6월 완공하게 된다. 그동안 대전시는 IT전용벤처타운 건립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중소기업청 국비 24억원 확보로 IT 벤처기업의 성장단계에 필요한 안정된 입주공간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IT 동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IT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술융합 핵심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 울산시, '2005 환경백서' 발간

울산시는 시민들의 환경인식 제고와 각종 환경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한해 동안 울산의 환경변화를 담은 '2005 환경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05 환경백서'는 총 528쪽으로 모두 500부가 발간돼 행정부서, 학계, 시민단체 등에 배부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현황, 환경관리기반, 환경보전대책, 부록 등으로 구분 편집됐다.

일반현황에서는 환경여건, 국내·지역환경동향, 환경행정 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환경관리기반에서는 환경

개선중기종합계획 수립추진 현황을 비롯, 환경영향평가제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환경관련위원회,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을 실었다.

환경보전대책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대기보전, 생활환경관리, 수질보전, 하수관리, 상수관리, 환경자원관리, 유해화학물질관리, 토양보전, 해양환경보전, 지구환경 등의 현황 및 추진상황 등이 게재됐다. 부록에서는 환경관련자치법규, 환경관리위원회 현황, 민간환경단체등록현황, 대기환경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연구용역사업 목록, 급수시설 현황 등을 담았다.

### ■ 인천시, 공무원 71.8%가 자원봉사 참여의사 밝혀

인천시에서는 지난 12일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자원봉사활동에 공무원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에 공무원자원봉사 의식 및 실태파악을 위해 실시한 공무원 자원봉사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7.2%가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71.8%가 자원봉사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족, 동료, 동호회원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형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5월과 10월 셋째주를 「공무원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해 부서별로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방학기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자원봉사단」을 발족하여 지원하는 한편, 시, 군구 공무원, 동호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봉사활동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동호회자원봉사단」운영 등 실정에 맞는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어울림」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가기로 했다.

## 지자체 소식

또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요령,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1만여 전 공무원에게 배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콘도 이용, 공연장 입장 등 각종 복지혜택에 대해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전남도 경제·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사랑운동 전개

전남도는 지역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 및 YMCA 등 시민 단체와 공동으로 '기업사랑운동'을 전개, 전남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결해 주고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 하도록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기업인 예우조례'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목포상공회의소, 여수YMCA 등 경제·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전남도 기업사랑 협의회'를 구성, 도민과 함께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 등 '기업기 살리기'를 앞장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사랑협의회는 이번달 중으로 목포상공회의소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도와 경제·시민단체가 추진할 공동과제를 선정, 각 기관별로 사업소개 및 협조사항을 토의하고 기업에로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기업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업사랑협의회와 공동으로 2006년을 '전남기업활살리기 원년'으로 정하고 △기업사랑운동의 범도민 확산 △활력한 기업인 발굴·홍보 △경제교육의 내실화 △기업사랑 토론회·포럼 활성화 및 노사협력 사업지원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등 5개 사업 분야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 전북도 2006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선정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북도의 2006년도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이 선정되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산업인프라,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획사업을 대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등 혁신센터를 통해 발굴한 총 9건의 사업중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이중 4순위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북전략산업의 보완 육성차원에서 ①자동차부품 산업기반기술혁신집적화단지조성운영사업(전북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②핵심기능기계부품·소재실용화사업(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 ③웰빙니트소재개발사업(한국니트산업연구원), ④첨단기계산업특화기술분야상품화지원사업(전북대TIC) 등 4개 사업이다.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사업 기획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 시·도당 3개사업 이내로 최종 확정되게 되며, 단위사업당 3년간 국비 150억원 정도가 지원될 계획이다.

참고로 전북도의 2005년도 지역혁신 기반구축사업은 바이오파크인프라구축사업과 기계산업리서치센터 확장사업으로 3년간(2005년~2007년) 총 110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 ■ 제주도 지역특성에 알맞은 습지보전 및 이용 사업 추진

제주도에서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지금까지 국가사무였던 습지에 대한 생태계 현황 및 오염현황 등 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의 지정·해제·변경,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시행,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중지명령, 출입제한 등의 사무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공동사무로 됨

으로써 지역특성에 알맞는 습지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도내 습지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2002. 12. 5일 환경부가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한 “물영아리오름 습지”에 대하여 불법행위 감시 및 순찰활동을 위한 감시단 구성 운영, 수위·수질 및 동식물상 모니터링, 탐방로 423m 목재데크(사업비 100백만원) 시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2002년부터 금년까지 400백만원(도 200, 군 200)을 투입하여 북제주군 조천읍 신촌리 남생이못, 애월읍 하가리 연화연못, 한경면 조수리 돛곳물,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구시홀못, 남제주군 상산읍 오조리 논못 등 5개 습지(마을연못)를 복원하여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과 더불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마을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균형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물영아리오름습지에 대하여는 자연탐방프로그램, 산림 및 습지생태탐방코스 개발 운영으로 탐방객에게 자연환경 이해 증진을 도모키 위해 경계울타리, 감시초소, 자연학습탐방로 개설 등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마을연못 1개소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습지의 생태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습지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습지보전지역 등과 함께 이용 및 자

연생태학습장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1100고지의 습지지정과 람사습지 지정 방안도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검토,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충남도, “찾아가는 기업지원팀” 운영

충청남도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일환으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처리·지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기업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기업지원팀은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 6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지난 10월부터 ▲애로사항 지원 ▲자금지원 ▲기업유치 ▲산업인력 지원 분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방문 대상기업은 시군과 협의 지난해 제조업체 일제조사결과 신규등록된 업체와 충남도내로 이전한지 3년미만인 50여개 업체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팀원은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道 해당부서에 처리토록 협조하고 해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체크하는 관리카드를 업체별로 작성 운영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책사업은 신규등록 및 도내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의 현장 실무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입회 문의

TEL : (02) 852 - 2291 (代)